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0년도 제1호

모두를 위한 마음. 알베르토의 설립자,
성 알베르토 슈미엘로프스키
© <http://patron.parafia-bratbert.pl>

“예수님은 죄인들 곁에 계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심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여 선한 강도가 은총의 증인이 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사람아, 네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라.”

(창세 3,19 참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사가 성 루카는 예수님의 수난사에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것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그 두 번째 죄수가 머리를 예수님께 돌리며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39-43)

이 남자가 하는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지만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입니다. 분명 한 줄기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인지 그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죄수는 아마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두 번은 선행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런 다정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훌륭한 자선 사업을 더 많이 행하도록 하는 자극이 될 것입니다. 두 강도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한 죄인이 믿음을 갖도록 회개시킨 은총의 빛은 또한 그의 내면에서 사랑의 샘을 솟아나게 했고, 여기에서 참회와 동정심이 우러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인식하고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짧은 에피소드 안에 회개하는 강도의 영혼 속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성한 구원 희생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구원의 열매를 청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장엄한 선포이며 우리 시대에까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있는 자신의 손과 발을 풀 수 있었겠지만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고

귀하고 위엄 있는 사면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조롱하던 민중 지도자들 눈앞에서 강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얼마나 왕다운 행동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순 시기에 -물론 이 시기에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상처, 못, 피, 가시 면류관, 창. 하지만 우리는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왕다운 품위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한 지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러한 존엄성 앞에 우리 모두 몸을 굽혀 복종합니다. 결국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선물에 마음을 엽시다. 그래야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Cardinal
Mauro Piacenza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갈리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하느님께만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42)

라틴 전례나 여러 동방 정교회와 달리,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 일 년 중 단지 두 번의 참회 시기와 이들의 엄격한 단식일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의식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부활절 전 사순 시기에, 또는 대림 시기에도, 어떤 음식과 음료 내지는 유흥을 포기하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교회의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숙고해 볼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금식을 지키는 것은 대개 그 목적과 내포된 의미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런 자발적인 포기 행위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절을 준비하게 할 뿐 아니라 나눔을 쉽게 알려 줍니다.

여러분의 준비된 자세,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의 자비로운 후의제가 글로 쓰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진정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악, 영화, 미술 분야에 사랑의 주제들이 넘쳐납니다. 낭만적인, 육체적인, 자유로운 사랑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수없이 노래되고 그려집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교는 ‘에로스(사랑)’에 독을 마시게 했다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그 독으로 인해 에로스가 죽지는 않았지만, 죄악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육체와 성에 적대적이고, 금욕은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들며, 사제 독신제는 자연에 위배된 것이고 위선적이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사제 독신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와 교회의 성윤리가 세상에는 하나의 도발입니다. 그렇지만 초대 교회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들이 개종하도록 계기를 준 것은 무엇보다도 신자들 사이의 형제적 사랑과 도덕적 순결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이런 삶의 방식이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하고 믿기 힘든’ 어떤 것이었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실제로 사제 독신제와 동정 생활의 이상에 열광했으며, 이는 부부간의 정절,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가치의 인정에 대해서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은 완전히 고대의 관습들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제 독신제의 진정한 ‘논리’는 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실용주의적인 주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며 또한 참된 사랑으로 드러나시는 하느님께 근거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제 독신제를 -그리고 또 혼인 역시-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칼라너가 1968년에 이미 정확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사제 독신제의 위기에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않고 생각해 보면, 이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신앙의 빈곤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영원한 생명의 실재가 인간에 의해 명확히 인식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신화화(非神話化), 세속화 같은 표제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체를 단순한 인간 사이의 일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을 통해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자선 활동과 인간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인간성이란 항상 사제 독신제의 ‘백색 순교’와 같은 순교자들의 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제 독신제는 사제가 단순히 어떤 임무, 어떤 기능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하기 위해 우선 그리스도의 특별한 개인적 후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일”, 모든 것을 움직이고 완성하는 진정한 사랑, 사제 독신제는 바로 그것을 보증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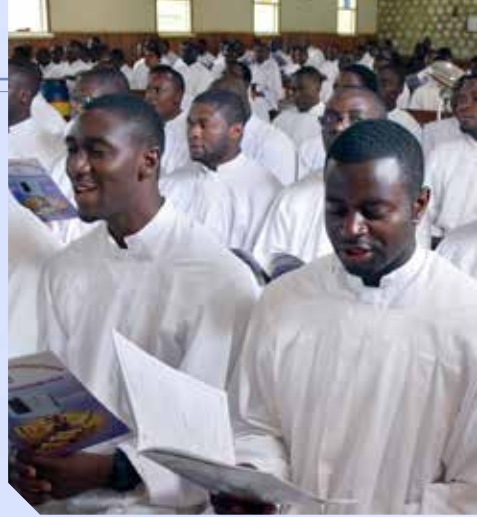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여러분을 위한 사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교회의 보편성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습니다.” 에리트레아 출신의 함텔렐 게브레이 신부가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하고스 단 신부는 이런 말로 감사를 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제, 형제들과 함께 커다란 가족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커다란 가정입니다.”



두 사제는 로마에서 열린 신학교 교육자를 위한 국제 연수 과정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 연수 과정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100명 이상의 교수와 학장, 교사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한 달간 레지나 아포스톨로룸대학에서 이론 지식을 새롭게 하고 교육의 주제들에 대한 최근 연구를 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와 미사 봉헌, 로마에서의 짧은 소풍을 통해서도 “성사적 형제애”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황청 성직자성은 사제 양성의 지침에서 ‘성사적 형제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사와 형제애에 대한 이런 의식은 항상 심화를 필요로 합니다.

사제들의 주보 성인 ‘퀴레 다르스(Cur D'Ars)’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사제는 얼마나 위대

한 존재입니까! 사제는 천국에서 비로소 이해받을 것입니다. 그는 천국 보화를 얻을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사제는 자신을 위한 사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자신에게 성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사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사제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교육자들이 신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과 만남으로써 교육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출신으로, 교회의 소명은 풍부하지만, 자금이 너무 부족한 곳들입니다. **이에 ACN은 매년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비로운 후의에 힘입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원조입니다.

파라코우의 신학교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1테살 2,9)



사도 바오로가 전한 이 복음 말씀은 **베냉** 파라코우대교구 신학생들을 위한 표어이기도 합니다. 파라코우대교구장 파스칼 응코우에 대주교는 미래의 사제 9명이 나중에 시골에 살면서 거의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학적, 지적으로 어떤 수준에 올라야 할 뿐만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서 생존하면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 수준의 수공업적인 실무와 농업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빈곤에서 벗어나 하나의 미덕을 만들기 위한 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구가 가난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26개 본당의 사제들을 거의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은 이들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들을 받아줄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신학생들은 반쯤 무너진 농장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개축하여 아쉬운 대로 경당을 꾸몄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아직 공동 침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어에 걸맞게 그들은 직접 신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젊은 신학생과 교육자들에 맞춘 신학교 공간과 경당을 개축 및 증축하기에는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살 수도 없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응코우에 대주교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CN은 약 5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파라코우의 신학교는 매력적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마음에 들어 할 것입니다.

순교자 교회에서 나온 새 사제들

때로는 소명에 빠르게 응답합니다. 성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전하신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위대한 성녀가 개인 일기장에 적어놓은 바에 따르면 후에 많은 문제로 고심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성심이 나의 커다란 사랑이었습니다.”라고 썼지만, 젊은 시절 하느님께 처음 응답한 이후로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길에 대한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소명은 실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발견되기를 원하고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빨리 시작되면 더 좋습니다. **알바니아** 슈코더르 신학교에서는 6년간의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인간적 성장 안에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응답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씁니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출신의 신학생들은 평생 그들의 “처음의 커다란 사랑”에 대한 성실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제로서 소명의 문제에 마주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확신을 구하는 피정 후에 한두 명이 신학교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확고한 믿음 속에 살면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신학생 16명이 사제직과 성사의 임무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알바니아 국민의 10%가량인 가톨릭 신자 약 35만 명 중 많은 이들은 아직도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무신론 독재 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종교 활동은 고사하고 어떤 종교적 표현도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외세에 의한 점령군들의 교체 이전에 이 작은 국민국은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압제하에 굴복하여 살았습니다. 이들은 겨우 수십 년 전부터야 다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바니아의 순교자 교회에는 일종의 부활인 것입니다. 슈코더르 신학교는 작년에 2명의 부제 서품으로 재개교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ACN은 1년간 이곳 신학생 1명당 110만 원을 신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들은 겸손하며 봉사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혹은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크게 미소 지으며 받고, 또 무엇을 가져가시든 그렇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선물하다, 선교를 강화하다

수단은 아프리카 최초의 그리스도교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왕들과 평민들이 수백 년 넘게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서기 39년에 이미 행해진 바 있습니다. 수단에서 번성하던 그리스도교가 16세기에 몰락한 이유의 배경에는 신앙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제와 부제들이 없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희미해져 갔으며, 그리스도와와의 연결을 잃은 사람들은 이슬람의 압박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 오베이드 교구장에게는 신학생들의 충실한 양성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식은 신앙을 강화하고 비로소 선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는 이슬람교를 믿는 주변 지역을 바라보면서 신학생 29명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



유를 설명합니다. 신학생들이 수단의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교구에서 보낸 편지 서두에 “당신의 자비를 갈망 하나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있는 신앙의 형제들이 주님의 자비와 전 세계 교회의 공통된 믿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신학생 29명의 교육을 위해 약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신학생 1명당 1년에 100만 원으로 많지 않지만, 가난한 교구에게는 큰 액수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교회 안에서 발휘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요?



훌륭한 가르침의 씨앗

ACN은 현재 약 12,000명의 신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학생 10명 중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지만, **인도**의 많은 신학생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백 명의 사제를 배출했으나 비교적 작은 오디샤의 ‘크리스토 죠티(Khristo Jyoti)’ 대학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라는 모토에 따라 60명의 젊은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이 새로 입학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과 교리문답, 성사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역사와 전례의 증거라는 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ACN은 과거 이곳에 학업과 기도에 적합한 서적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마련한 성경과 책들을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신학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물론 가슴 속에 지니고 있지만, 사제 생활을 위해 각자의 성경과 기도서를 받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소명을 받은 대부분이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달리트’ 계층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사제들은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곳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억압을 심하게 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제로 존재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학교는 ACN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입학할 새 신학생 60명을 위해 용기를 북돋아 줄 새 책들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훌륭한 가르침의 씨앗에는 77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빛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요한 1,4-5) 현재 **베네수엘라**의 어둠 속에서 카루파노 신학교는 “작은 촛불이” 되려 합니다. 신학교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카루파노교구장 하이메 호세 비야로엘 주교는 빛과 어둠, 이 둘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어머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 13명의 성실과 끈기에 대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살인과 약탈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궁핍함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새 구두 한 켤레를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멕시코로부터 “주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 웃가지를 받습니다. 신학교 학장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하루 양식을 나누어줍니다.” 매일 6~10명 사이의 사람들이 오는데, 대개 근처의 이웃들입니다. 스페인의 친구들이 의약품을 보내주지만, 이들은 집중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아플 수도 없습니다.

교수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가르치며 이따금 차비를 받고 먹을 것을 얻습니다. “교회가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신학교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징표입니다. 블라디미르 테소레오 신학생은 “많은 사람이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ACN은 이 빛이 계속해서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이곳 신학교에 약 1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교를 향한 마음

그들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후원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환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도록 사도들을 파견하신 장소입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도미니꼬회 간호사 수녀들의 소명 중 하나는 시골에서 환자와 임종하는 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섭리가 해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36년간 **세네갈** 티에스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에 프랑스 본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티에스와 인근 지역 사람들은 수녀들을 기다렸고, 수녀들을 위한 약간의 땅을 만들어 두면서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수녀들은 25년이 지난 후 다시 와서 처음에는 몇 주, 그다음 몇 달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생피에르드라랑느 교구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땅에 수도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성 도미니꼬 외래 진료소 근처입니다. 수도원 건물에서 수녀들은 은사의 다른 요소들, 즉 기도와 공동생활, 선교 활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고요히 피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 부속 건물은 수녀들이, 다른 한쪽은 외래 진료소 실습생들이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수녀들은 ACN에 공사 자금으로 약 3900만 원을 청해 왔으며, 그들의 요청을 원죄 없으신 성모성심께 맡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성심은 한 번도 그들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가르멜회 수녀들은 수도회 설립자인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이런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데일리스 마리아는 27세이고 5년 전에 수녀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혼란 한가운데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고 그분을 믿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일상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ACN은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수녀 15명, 메리다에 있는 수녀 10명, 마라카이보에 있는 수녀 5명에게 생계 지원금으로 총 1천만 원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ACN이 하느님 섭리의 징표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살아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며, 수를 놓고 바느질을 하여 제의와 스카폴라를 만들고 뜨개질을 하고 작은 서점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검소한 생활을 하지만, 이것으로는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약품이나 물값만 해도 벌써 그들의 빠듯한 수입을 크게 웃돕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그것에 대한 중요한 표시가 있다 해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이 전진할수록 하느님의 사랑도 더 커질 것입니다.”



“온전히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

“작지만 활기칩니다.” **키르기스스탄** 교구장 서리인 예수회 사제 앤서니 코코란 신부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의 가톨릭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성 수도자는 그들의 진정한 보배입니다.” 그는 아래 편지에서 이 보배의 진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수녀들을 위한 생계 지원 약 400만 원을** 요청합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먼 지역, 높은 산, 뾰족한 정글, 길도 없는 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선교의 진짜 지리학은 마음과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 깊이와 높이를 탐색하는 데는 특별한 개척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성 수도자는 바로 그런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걱정, 느낌, 생각을 감지하는 그들의 능력이 선교 활동에서 특별한 역할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제가 활동했던 시베리아 지역에서 만난 바부슈카(러시아어로 할머니라는 뜻) 중 한 사람은 여성 수도자들이 봉사했던 교구 안에서 그들과 신자들 간의 내적인 연대를 몇 마디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히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 수년 전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러한 수녀님들의 옆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 사제로서 저는 그저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아직 가톨릭 학교가 없지만, 현재 우리 곁에 프란치스코 수도회 교사 수녀님 6분이 있습니다. 신자들과 예비 신자들은 하느님께 감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여성 수도자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은사와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기도, 헌신으로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에 있어서 참된 증인이 됩니다.

수녀님들이 얼마나 깊은 애정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선교사로서 제게 항상 큰 즐거움이었고, 큰 위로였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관계, 또는 과거 바부슈카가 제게 말한 것처럼 ‘상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속이 마음을 열게 하고, 이와 같은 깊은 신뢰가 도덕적인 권위를 만듭니다. 이러한 독특한 역학 관계는 특히 교회에서 여성 수도자들의 소명에서 나타납니다.

이웃 선교 교구의 한 주교님은 수녀님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차이를 느낀다고 이미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활동적이게 된다고 말이지요. 우리 사제들이 본당에서 수녀님들이 담당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항상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들의 세심함과 기꺼이 준비된 지원, 기도로 함께하는 동행,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선교의 수확물은 분명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만나도록 준비시킵니다. 성사에서, 말씀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열려 있는 순수한 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선교에서 이보다 더 축복받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모범이 용기를 줍니다. 제게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앤서니 코코란 신부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그들은 두 가지 의미로 최전선에 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그리고 자선의 최전선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알베르토회 수도자들은 노숙자와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봅니다.**

유리지는 69세입니다. 그의 생은 연민의 역사입니다. 이혼, 내면의 붕괴, 알코올 중독, 그리고 곧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발을 절단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자 그는 병원을 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겨울이었는데 그는 집도 없었고 목발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 병원을 떠났고 몸을 질질 끌고 어느 공원 벤치로 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부녀가 유리지를 발견하고 알베르토 수도회로 데려왔습니다. 수사들이 그를 받아 주고 그에게 휠체어와 침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 수사들은 “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유리지는 현재 수사들과 같은 집에서 집꾼으로 일하고 있고 여가 시간에는 정원의 채소들을 가꿉니다. 그는 수사들이 “나의 삶에 의미와 색깔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시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고르 역시 집도 없고 병든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여인이 그를 알베르토 수도회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그림던 침대를 얻었고, 따뜻한 식사와 옷도 받았습니다.” 이고르는 이미 너무 쇠약한 상태라서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고르를 처음 보았을 때 “2주 남았다”고 생각했던 비에스와프 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일에 진심을 다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그의 요리는 아주 맛있습니다.”

알베르토회 수사들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빵을 줍니다. 그들은 노숙자를 위한 숙소와 가난한 이를 위한 무료 급식소 그리고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회 설립자인 성 알베르토 슈미엘로프스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젊은 예술가였던 그는 앞서 ‘알베르투스’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했고, 밤마다 그의 아틀리에로 밀려오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고해신부의 조언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숙자 보호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고난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18세에 한쪽 다리를 잃었고, 마지막 2년간은 위암으로 고생을 겪었습니다. 하르키우 자포리자 교구에 있는 그의 네 명의 영적 아들들은 많은 사람에게 최후의 피난처와 같습니다. 같은 교구 내 9개 수도회의 수녀 45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이들과 노인들의 건강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첫 영성체 수업에 이르기까지, 수녀들도 전쟁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도 하르키우 자포리자 교구의 여성 수도자와 알베르토회 수사들을 위해 생계 지원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전달하여 그들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모두를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샤는 거리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알베르토 수도회 빵집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빵과 재료를 실어 나르는 비에스와프 수사.



다시 얻은 삶의 의미와 품위. 알베르토회 수사들은 그 누구도 버려두지 않습니다.



니네베 평원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위하여

구세주 예수의 형제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리아 가톨릭 수도회입니다. 이제 형제들의 수도원은 이라크에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시리아의 가장 큰 그리스도교 도시인 카라코시에 있었던 수도원은 2015년, 소위 IS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기존의 경당과 방수 처리가 필요한 막사 6채를 아우르는 새 수도원 건물이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세워집니다. 막사들은 수도회 수사 3명을 포함, 이곳에서 피정과 기도 모임을 하는 10~15명의 신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됩니다. 세 수사는 이곳의 대주교와 함께 니네베 지역에서 그리스도교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신자들의 영적 교육과 공동 기도가 2001년에 설립된 이 수도회의 은사입니다. 막사 수도원은 이미 사람들에게 구원과 희망이며 그리스도교 문명에 있어서 귀환의 표징과 같습니다. **ACN은 니네베의 “예수님의 형제들”을 위해 지붕과 벽 공사 비용으로 약 2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카 24,32)

인도 예수성심의 형제회 수사 300명의 마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메시지를 옮겨 놓으려 합니다. 수사들은 모두 인도 출신입니다. 작년 두 설립자 중 한 명인 안젤로 수사의 선종 50주기를 지내며 지속적인 쇠신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수도회 두 관구 중 하나인 안젤로 관구의 수사 115명이 각자 이틀간 설립자의 영적 유산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바로 순종과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회 변두리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원조를 향해 보이는 비타협성입니다. 관구장인 안토니 라지 수사는 편지에 이는 특히 안젤로 수사가 평생 함께해 왔던 가난한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에서 나오는 가난한 이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수도회의 은사도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화와 교육, 사회사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인도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맹인, 정신 장애인,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수사들은 이 계획을 위한 보조금 약 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후의와 연대감이 그들 마음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파키스탄은 그리스도인에게 힘든 지역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더욱 힘든 곳입니다. 평생 수녀로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와 이곳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매우 사랑함에 틀림없습니다. **ACN은 ‘예수 마리아 자선 수녀회’ 소속 고령의 수녀들이 라호르에 있는 낡은 수도원을 보수하는 것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수녀들은 자신이 평생 헌신한 나라에서 안전하고 고요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넉넉한 후의 덕분에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소피아 파트라스 수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갚아 주실 수 있습니다.” 수녀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릴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 수녀를 위한 생일 케이크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

저는 5살, 3살, 2살 된 어린아이들을 키운다는 핑계로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인색했습니다. 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늘 뒷전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에 내 앞으로 쌓아 둔 보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육아를 하느라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는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ACN에게 적으나마 후원금을 보냅니다. 저로 하여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숙한 서원을 앞두고

제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의 엄숙한 서원을 앞두고 세속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동봉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저의 그리스도교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선물

저는 호주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ACN 신앙의 선물 캠페인을 통해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손주들에게 우리가 후원할 신앙의 선물을 골라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일찍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소를 되찾아 주기를

그리스도처럼 고통당하고 자신의 삶을 내주는 형제자매들을 여러분과 함께 도울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를 빕니다. 저의 후원이 알레포에 있는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 마땅합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다

저는 슬로바키아의 신학생입니다. ACN이 슬로바키아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과 특히 그 일을 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사랑의 메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도움을 주고 그것을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항상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투명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물론 제 기도도 함께 약속드립니다.

영적인 글의 가치

친애하는 마르틴 바르타 신부님, <사랑의 메아리>에 실렸던 신부님의 편지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 가장 훌륭한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부님의 편지를 10부씩 복사하여 저희 기도 모임에도 나눠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느님, ACN을 축복하소서.

어린이의 기부

저의 이웃에 사는 6살과 13살 자매 덕분에 기부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주려고 했던 자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기하면서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성탄절 정신을 나눠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04537)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ACN 사순·부활 캠페인

현대 순교자와 신앙의 증거자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ACN은 물질적 지원과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ACN은 올해 “현대 순교자와 신앙의 증거자들”이라는 주제로 사순·부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신앙을 증거하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우측 캠페인 링크를 통해 들어보세요.



캠페인 링크

<http://bit.ly/WitnessofFaith>

위 주소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 후 캠페인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ACN 십자가의 길 발행

ACN 한국지부는 2020년 <현대 순교자들과 신앙의 증거자들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길>을 제작·배포합니다. ACN 십자가의 길 소책자가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신청 링크

<http://bit.ly/ViaCrucis2020>

신청 문자

010-7475-6440

(이름, 세례명, 주소, 신청부수를 작성하여 문자 주세요.)



ACN 한국지부, 서울대교구 수색성당 방문

ACN 한국지부는 2020년 1월 11월과 12일, 서울대교구 수색성당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며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ACN의 역사와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신앙의 선물’ 캠페인 중 하나인 시리아 ‘한 방울의 우유’ 사업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는 주님 세례 축일에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신앙의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심홍보 베드로 주임신부님과 수색성당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